

사자춤 따라하고, 강강술래 돌고...놀이로 풀어낸 국악 무대

광주시립창극단 '빛고을 아침 꼬마풍류'

"사자야! 나오나라!"

진행자의 외침에 맞춰 사자가 무대에 등장했다. 사자탈을 쓴 단원들이 몸을 낮추고 흔들며 한바탕 동작을 펼쳐냈다. 이어 사자가 동물의 형상을 흉내 내면 맞추는 형식의 시연이 잇따랐다. 강강술래 무대가 뒤를 이었다. 무용단원들은 원을 이루고 손을 맞잡은 채 노래와 율동을 선보였다. 손치기와 발차기 동작을 보여주며 관객의 참여를 이끌기도 했다.



광주시립창극단이 오는 7일부터 영유아 대상 '빛고을 아침 꼬마풍류' 야외 공연을 선보인다. 사진은 1일 창극단 대연습실에서 단체사진을 찍는 출연진들의 모습.

오는 7일 시작으로 상반기 총 6차례 운영 연희·판소리·기악·전통춤아우른 4개 챗터

광주시립창극단(예술감독 김용호)이 1일 오전 창극단 대연습실에서 '빛고을 아침 꼬마풍류'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작품 소개 및 시연회를 열었다.

공연은 오는 7일을 시작으로 9일, 21일, 23일, 5월19일과 21일 오전 11시 총 6차례 광주예술의 전당 국악당 앞 야외 '꼬마풍류마당'에서 열린다.

'빛고을 아침 꼬마풍류'는 지역 국공립 전통 예술단체 중 4-6세 영유아를 위한 전통공연을 자체 제작해 선보이는 첫 사례다.

이번 공연은 10년 넘게 방치돼 있었던 야외 공간을 무대로 삼아 기획됐다.

김용호 예술감독은 "전당에 영유아 단체 방문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야외 유희 공간에

서 체험형 공연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릴 때 전통에 대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빛고을 아침 꼬마풍류'는 전통예술을 '공부'가 아닌 '놀이와 경험'으로 접하도록 설계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공연은 연희, 판소리, 기악, 전통춤 등 4개 챗터로 꾸러지며 30-40분 동안 짧은 시연과 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은 사자춤을 따라하고, 강강술래를 배우며, 약기를 만지고 소리를 내보는 등 공연의 일부로 참여한다.

특히 기존 국립단체 공연과 달리 외부 단체를 초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극단 단원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 창작곡 중심이 아

닌 전통 레퍼토리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집중도를 고려한 세심한 구성도 강조했다.

김 감독은 "영유아는 30분이 지나면 지루해하기 때문에 짧은 공연과 긴 체험을 병행하는 구조로 만들었다"며 "강강술래, 판소리 같은 단어를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단원들도 공연준비과정에서의 고민을 전했다.

공연 진행을 맡은 이미소 상임단원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국악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많은 시간을 들여 대본과 구성을 고민했다"며 "동물 머리띠나 체험 요소를 활용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 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 신청을 중심으로 상반기 6회 전석이 모두 매진된 상태다. 현재는 회당 50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20-30명 정도 추가 관람이 가능하다. 이는 영유아 대상 공연의 특성상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창극단은 향후 공연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예매 시스템 도입과 함께 더 넓은 공간에서의 공연 가능성도 논의 중이며,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용호 예술감독은 "이 작은 무대가 창극의 미래 관객을 키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통예술이 세대를 잇는 살아 있는 문화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비엔날레 '불림' 프로젝트

시민이 모은 금속 예술 작품으로...

(재)광주비엔날레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연계 프로그램으로 오는 5월8일까지 시민 참여형 '금속 모으기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활동은 제16회 광주비엔날레 GB커미션 작품인 권병준·박찬경의 '불림'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광주비엔날레는 매회 국내외 작가를 선정해 지역 리서치를 기반으로 신작을 발표하는 GB 커미션을 선보여왔으며, 이번에도 전시 주제와 실용성을 반영한 다양한 작업이 기획된다. 그중 '불림'은 광주·전남 지역 도·시민과 학생들이 금속을 기부해 완성하는 참여형 작품이다.

'불림'은 밝이나 돈을 '불림'다는 뜻으로, 한국 전통 의례인 '결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과거 농악대나 스님이 마을을 돌며 쌀이나 고철을 모으고 음악이나 염불로 보답했던 방식에서 착안했다.

특히 쇠걸림은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용 상징물과 도구를 마련하는 과정으로, 모아진 고철은 각자의 기원이 담긴 '죽은쇠'를 의미한다.

이를 녹여 새로운 소리를 내는 '산쇠'로 재탄생시키는 행위는 개인의 염원을 확장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로 해석된다.

작가들은 이러한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수집된 금속으로 새로운 악기를 제작하고 이를 시민들의 공동제작 소리로 확장하는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금속 모으기' 활동은 광주시교육청과 협력해 추진되며, 지역민과 관련 종사자,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통합과 문화 교류의 의미를 담는다.

광주비엔날레 측은 이를 통해 '불림' 프로젝트가 공동체 가치를 나누는 열린 장으로 기능하고, 비엔날레의 의미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범모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시민과 학생이 예술적순환 구조 속에서 작품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와 문화적 가치를 나누는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 모으기 활동 '불림, 죽은쇠 모아 산쇠 만들기'는 광주 내 공공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시민 생활주거지와 광주비엔날레 재단 등에서 진행된다. 참여자는 작품 크레딧이 이름이 기록된다. /최명진 기자

판소리·재즈의 다이내믹한 만남

'그루브 in 판소리'...내일 북구문화센터

동서양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크로스오버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북구문화센터는 오는 3일 오후 7시30분 대한민국의 최정상 재즈 뮤지션들로 구성된 '한웅원 밴드'와 국악 신동 출신 젊은 소리꾼 '유태평 양'이 함께하는 국악 크로스오버 기획공연 '그루브 in 판소리'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정 우수 공연이다.

우리 교유의 질은 서사와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 판소리에 다이내믹하고 자유로운 재즈



한웅원밴드와 유태평양

연주가 더해져 마치 한 편의 새로운 뮤지컬을 관람하는 듯한 신선하고 폭발적인 음악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문화센터 홈페이지 확인. /최명진 기자

바람따라 펼쳐지는 '연결'의 감각

4일까지 호랑가시나무창작소 기획전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바람의 감각으로 풀어내 펼쳐 보이는 전시가 마련됐다.

호랑가시나무창작소는 오는 4일까지 기획전 '바람 속을 () 걷는 사람들'을 개최한다. '연결'을 주제로 회화, 조각, 영상, 설치 작업을 통해 동시대적 관계 맺기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전시 제목의 괄호는 특정한 주제를 비워둔 채, 관람객과 작가 모두를 '연결'의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장치다.

전시에는 김수민·김유나·김진선·노은영·박초연·박희민·이지숙·전효인·주수빈·최정조



최정조작 '연결의 흔적, 허음(虛音)'

등 서울과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10명이 참여했다.

서로 다른 지역과 경험을 지닌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느슨한 연결의 감각을 드러낸다. /최명진 기자

CBS 라디오

아침 시사의 새로운 중심

박성태의 뉴스쇼

월~금 07:10~09:00

98.1 FM

CBS 표준FM

CBS RAINBOW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YouTube